

ABC제도의 신뢰성 높이고 내실 다져 나갈 것



이 만 우

- 한국ABC협회 상근부회장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SK 홍보팀장
- SK 부사장 (SUPEX(Super Excellent) 추구협의회 PR팀장)
- 한국광고주협회 광고자율심의 위원장
- 한국PR협회 부회장 역임

한국ABC협회는 지난 9월 13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만우 전SK 부사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오랜시간 광고주로 일하며 한국 광고주협회 운영위원 및 광고자율심의위원장으로도 활동해온 이만우 상근부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먼저 축하인사 드린다. 광고주로 오랫동안 일해오셨는데, ABC협회 상근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서 포부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지난날 광고주로서 일하면서 한국ABC협회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ABC협회가 미디어산업과 광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쫓 지켜봐 왔다. 상근부회장으로 ABC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들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ABC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ABC제도 앞에 많은 어려움과 과제가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 그로 인한 인쇄매체 시장의 침체, 정부광고법의 제정 등 외부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협회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척도와 조사기법 개발,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재정건전성 제고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 임직원

과 회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결책을 찾아가려 한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부수공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그 외에도 향후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ABC 부수공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ABC협회는 조사기구로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조직 생존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ABC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와 함께 미디어의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바일 등을 포함해 새로운 미디어 측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달되는 미디어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사랑받고, 조직원이 자긍심을 갖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 임직원과 회원들이 생각을 함께 한다면 많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

한국ABC협회는 1989년 설립된 신문, 잡지, 웹·모바일 등의 매체량 공사기구로 국제ABC연맹(IFABC) 정회원이다. 현재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은 일간신문 196개사, 주간신문 731개사, 잡지 249개사, 전문지 93개사, 웹사이트 12개사 등 총 1,576개사에 이른다.